

학현학술상 역대 수상자 및 수상 논문

- 제1회 (2011년) 윤진호(인하대)·이시균(고용정보원),
“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”
- 제2회 (2012년) 홍장표(부경대), “지역산업집적의 지식파급효과”
- 제3회 (2013년) 남기곤(한밭대), “대학 진학은 서울로 : 합리적인 선택인가?”
- 제4회 (2014년) 주상영(건국대), “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”
- 제5회 (2015년) 수상자 없음
- 제6회 (2016년) 홍민기(노동연구원), “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(1958~2013년)”
- 제7회 (2017년) 박복영(경희대)·이서진(한국은행 경제연구원),
“원조는 수혜자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가? - 국가단위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-”
- 제8회 (2018년) 장지상(경북대)·홍장표(부경대), “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- 거래비용이론, 재산권적 기업이론, 대리인이론의 실증적 검토-”
- 제9회 (2019년) 배영목(충북대), “한국의 금융발전 1962~2016: 자금순환 분석”
- 제10회 (2020년) 수상자 없음
- 제11회 (2021년) 수상자 없음
- 제12회 (2022년) 조원기(고려대)·이우진(고려대)·최준영(한국문화관광연구원),
“인구고령화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인가?”
- 제13회 (2023년) 이 근(서울대), “Varie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(NIS) and Alternative Pathways to Growth beyond the Middle-Income Stage: Balanced, Imbalanced, Catching up and Trapped NIS”